

4.3소설과 오키나와전쟁소설의 대비적 고찰:* 김석희와 메도루마 순의 경우를 중심으로

김동윤**

- I. 들머리
- II. 훼손된 공동체의 재현 방식
- III. 공동체 복원 추구의 방식
- IV. 문화적 정체성의 강조 양상
- V. 마무리

국문요약

이 글에서는 4·3문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 지역의 문학적 연대를 위해서 오키나와 작가 메도루마 순(目取眞俊; 1960-)의 소설(「바람소리」·「물방울」·「혼 불어넣기」·「브라질 할아버지의 술」·「이승의 상처를 이끌고」·「나비떼 나무」)과 제주 작가 김석희(1952-)의 소설(「땅울림」·「고여 있는 불」)을 대비적(對比的)으로 고찰하였다.

김석희의 4·3소설과 메도루마 순의 오키나와전쟁소설은 참혹한 사대의 양상과 관련하여 지역공동체의 독립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반면, 오키나와전쟁소설과는 달리 4·3소설의 경우 독립 지향성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4·3 이후에는 시도해 보기도 어려운, 전설과 꿈으로만 여겨질 따름이다. 그

* 이 글은 2015년 4월 24일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제국의 폭력과 저항의 연대: 4·3의 땅에서 오키나와 문학을 보다’ 주제의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논문이다.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래서 「땅울림」의 현용직과 김종민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고여 있는 불」에서는 화젯거리로만 떠오를 뿐이다. 이는 메도루마 순이 초현실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접근하는 작품을 주로 쓰는 데 비해, 김석희의 경우 취재와 추리에 근거하는 리얼리즘 방식으로 창작했음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다. 정치권력에 의해 오랫동안 금기였던 4·3 담론과 일본·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인식의 확대를 지향해온 오키나와전쟁 담론 간에는 그 문학적 형상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지역공동체를 중시하는 두 작가는 문화적 정체성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낸다. 전통적 제의(祭儀)를 요긴하게 활용하여 주제를 구현한다는 면에서는 두 작가가 상당히 유사하며, 방언(‘제주어’와 ‘우치나구치’)의 활용에 있어서는 메도루마 순이 더 적극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4·3소설의 입장에서 볼 때 오키나와전쟁소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오키나와전쟁소설은 4·3을 4·3 자체만으로 애써 한정하려거나 지역적·국내적 범위에 묶어두려는 4·3소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경종을 울려준다.

주제어: 김석희, 메도루마 순, 4·3소설, 오키나와전쟁소설, 지역공동체, 독립, 정체성.

I. 들머리

처음엔 오키나와만 보이고 제주만 보였는데, 태풍이 두 섬을 연결하듯 오키나와와 제주를 연결하는 숙명의 끈이 느껴졌다. 그러더니 급기야는 두 섬의 숙명이 세계체계의 파도를 헤치면 형성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제주와 오키나와의 문제는 과거에도 지금도 세계의 문제였다.¹⁾

이시우는 20세기 초중반 일본과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이 동아시아의 제주와 오키나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펼쳐졌고, 오늘날에도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와 제주의 강정 해군기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세계체계의 진짜 얼굴이 제주와 오키나와에서 드러난다는 믿음을 여러 근거를 통해 입증하였다.

1) 이시우, 『제주 오키나와 평화기행: 동백꽃 눈물』, 말, 2014, 19쪽.

제주4·3에 관심을 두다 보면, 4·3은 아직도 여러 형태로 진행 중이고, 그것은 또한 제주만의 문제가 아님을 절감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키나와에 다가서게 된다. 제주와 오키나와는 참으로 많이 닮았다. 이시우의 언급처럼 ‘숙명의 끈’이 느껴진다. 오키나와는 제주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다. 제주의 문제를 확대하고 앞당겨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역이 바로 오키나와라 할 만하다.

그러기에 오키나와전쟁소설을 읽으면서 4·3소설의 양상을 떠올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고 더러 유다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제주에서 오키나와문학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분명하다. 4·3문학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 지역의 문학적 연대를 위해서, 양자 간의 대비적(對比的)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키나와 소설이 국내에 번역 소개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다. 필자가 과묵한 탓인지 모르지만, 세 작가의 중·단편 14편이 최근 10년 사이에 번역 소개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오키나와 최초의 근대소설로 알려진 야마시로 세이쥬(山城正忠; 1884-1949)의 「구넨보(九年母)」(1911)가 최근 번역되었고,²⁾ 마타요시 에이키(又吉榮喜; 1947-)의 경우 3편의 작품이 『긴네무 집(ギンエム屋敷)』이라는 제목으로 엮여 출간되었으며,³⁾ 메도루마 슌(目取眞俊; 1960-)의 경우 작품집 『물방울(水滴)』⁴⁾의 3편, 『혼 불어넣기(魂込め)』⁵⁾의 6편, 기타 2편⁶⁾ 등 모두 11편이 번역되었다.(<표> 참조)

2) 야마시로 세이쥬, 「구넨모」, 『지구적 세계문학』 제5호, 손지연 역, 글누림, 2015 봄.

3) 마타요시 에이키, 『긴네무 집』, 광형덕 역, 글누림, 2014.

4) 메도루마 슌, 『물방울』, 유은경 역, 문학동네, 2012.

5) 메도루마 슌, 『혼 불어넣기』, 유은경 역, 아시아, 2008. 한국어 번역판은 처음에 『브라질 할아버지의 술』로 출판됐다가 『혼 불어넣기』로 개제됐다.

6) 서정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역, 돌베개, 2006, 66-68쪽에 메도루마 슌의 엮편소설 「희망」 전문이 번역되어 실림; 메도루마 슌, 「나비떼 나무」, 『지구적 세계문학』 제5호, 광형덕 역, 글누림, 2015 봄.

〈표〉 국내에 번역된 오키나와 소설

작가	작품명(발표 연도)	번역자(연도)
야마시로 세이쥬 (山城正忠; 1884~1949)	「구넨보(九年母)」(1911)	손지연(2015)
마타요시 에이키 (又吉榮喜; 1947~)	「조지가 사살한 멧돼지(ジョージが射殺した猪)」(1978) 「창가에 검은 벌레가(窓に黒い蟲が)」(1978) 「긴네무 집(ギンエム屋敷)」(1980)	곽형덕(2014) " "
메도루마 슌 (目取眞俊; 1960~)	「바람소리(風音)」(1985) 「붉은 야자나무 잎사귀(赤い椰子の葉)」(1992) 「물방울(水滴)」(1997) 「오키나와 북 리뷰(オキナワン・ブシク・レビュー)」(1997) 「혼 불어넣기(魂込め)」(1998) 「브라질 할아버지의 술(ブラジルおじいの酒)」(1998) 「투계(鬪鷄)」(1998) 「내해(内海)」(1998)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面影と連れて)」(1999) 「희망(希望)」(1999) 「나비떼 나무(群蝶の木)」(2000)	유은경(2012) 유은경(2008) 유은경(2012) " 유은경(2008) " " " " 임성모 외(2006) 곽형덕(2015)

국내에 번역된 오키나와 소설들 가운데 오키나와전쟁에 중점을 둔 작품으로는 마타요시 에이키의 「긴네무 집」, 메도루마 슌의 「바람소리」·「물방울」·「혼 불어넣기」·「브라질 할아버지의 술」·「이승의 상처를 이끌고」·「나비떼 나무」 정도를 꼽을 수 있다.⁷⁾ 여기서는 마타요시 에이키의 「긴네무 집」은 제외하고,⁸⁾ 메도루마 슌⁹⁾의 작품 6편만을 논의 대상으로

7) 마타요시 에이키의 「조지가 사살한 멧돼지」·「창가에 검은 벌레가」에는 미군 주둔과 관련된 문제가 예리하게 그려져 있으나, 오키나와전쟁 문제는 직접 다루지 않고 있다. 메도루마 슌의 「투계」·「내해」·「붉은 야자나무 잎사귀」·「희망」의 경우 부당한 폭력과 횡포, 미군과 미군부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다루지만 오키나와전쟁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 서평 형식을 빌린 「오키나와 북 리뷰」에서도 전쟁과 관련된 언급들이 있긴 하지만, 지역정체성과 현실의 문제에 더 초점을 둔 작품이다. 이들 작품들은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 부분적으로 언급하기로 한다.

8) 마타요시 에이키의 「긴네무 집」에 대해서는 이미 다음 글에서 현기영의 「순이삼촌」과 함께 논의한 바 있다. 이명원, 「오키나와 전후문학과 제주 4·3문학의 연대: 마타요시 에이키의 「긴네무 집」과 현기영의 「순이삼촌」의 세계성」,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4), 463-486쪽.

삼고자 한다.¹⁰⁾ 이와 대비해 볼 4·3소설로는 김석희(金碩禧; 1952~)의 「땅울림」(1988)과 「고여 있는 불」(1989)을 선정하였다.

두 작가를 함께 논의하는 까닭은 모두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강한 미체험¹¹⁾ 작가라는 데서 기인한다. 이러한 공통점에 따라 지역공동체를 둘러싼 두 작가의 역사 인식과 재현 전략에 주목코자 하였다. 각기 4·3과 오키나와전쟁을 추체험하면서 공동체 훼손의 참상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고, 그 공동체를 어떤 방식으로 복원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태도는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대비해 보고자 한다.

II. 훼손된 공동체의 재현 방식

김석희가 쓴 4·3소설은 「땅울림」과 「고여 있는 불」 두 편에 불과하다.¹²⁾ 하지만 그는 재일(在日)작가 김석범(金石範)의 4·3 연작인 「간수박 서방」·「까마귀의 죽음」·「관덕정」이 수록된 작품집 『까마귀의 죽음(鴉の死)』을 번역하였는가 하면, 4·3 대하장편 『화산도(火山島)』 제1부를 이호철과 공동으로 번역하였다.¹³⁾ 그가 지속적으로 4·3소설을 쓰지

9) 메도루마 슌(目取眞俊)은 1960년 오키나와 나키진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시마 부쿠로 다다시(島袋正)이다. 류큐대학 법문학부를 졸업했고, 1983년 단편 「어군기(魚群記)」로 류큐신보 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했다. 신오키나와 문학상, 아쿠타가와 문학상,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 기야마 쇼헤이 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작품집으로 『메도루마 슌 단편소설선집1-3』, 『눈 깊은 곳의 숲(眼の奥の森)』, 『무지개새(虹の鳥)』, 『나비떼 나무』, 『물방울』 등이 있다.

10) 메도루마 슌의 작품 중 「바람소리」·「물방울」은 『물방울』(유은경 역, 문학동네, 2012)을, 「혼 불어넣기」·「브라질 할아버지의 술」·「이승의 상처를 이끌고」는 『혼 불어넣기』(유은경 역, 아시아, 2008)를, 「나비떼 나무」는 『지구적 세계문학』 제5호 수록분(곽형덕 역, 글누림, 2015)을 각각 텍스트로 삼는다. 따라서 이들 작품 인용 시에는 () 안에 작품명과 쪽수만 명기기로 한다.

11) 여기서의 ‘미체험’이란 각각 제주4·3사건과 오키나와전쟁을 체험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12) 두 작품 모두 그의 소설집 『이상의 날개』(실천문학사, 1989)에 수록되었다. 이 글에서 이들 작품 인용 시에는 작품명과 이 소설집의 쪽수만 ()에 명기기로 한다.

는 않았지만,¹⁴⁾ 4·3에 대한 깊은 천착을 지닌 작가임이 분명하다.

「땅울림」은 지방일간지 기자인 ‘김종민’이 ‘현용직’이라는 인물을 취재해 놓은 것을 화자인 ‘나’가 다시 서술하는 형식의 작품이다. 36년 동안 입산자로 살아온 현용직을 등장시켰다는 설정에서부터 4·3에 대한 차별적인 접근 방식이 읽혀진다. 작품 곳곳에서 4·3의 참상이 제시됨은 물론이다.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지 무차별사격이 가해졌고, 날선 죽창이 함부로 박혔다. 남정네들은 하나씩 둘씩 짐을 떠나, 산도 해변도 아닌 마른 냇가의 바위틈새나 동굴 속으로 또는 덤불 우거진 밭담 기슭에 땅을 파고 숨어들었다. 그렇다고 사정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이같은 도피자를 가족으로 둔 집안에서는, 아내나 늙은 부모가 대신 화를 당했다. 고문, 폭행, 강탈, 강간, 살인, 생매장……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만행이 실제로 자행되었다. 입산부를 운간한 뒤 배를 가른 시체가 까마귀밥이 되어 형체조차 없이 나뒹굴었으며, 스스로 구덩이를 파는 사람들이 끼이끼이 까마귀울음을 울었다. 심지어는 부락 전체가 반동마을로 낙인찍혀 방화되거나, 빨갱이로 몰려 떼죽음을 당한 곳도 적지 않았다.(「땅울림」, 65쪽)

이러한 참상이 계속되는 와중에도 현용직은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 기둥 같은 존재였던 외조부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태도는 급변한다. 외조부를 비롯한 12명의 노인들이 무장대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무고하게 학살되자, 그는 참고 있을 수 없었다. “무모한 속임수, 무자비한 폭력, 무고한 희생, 무의미한 현실”(72쪽)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기로 작심한 그는 외조부를 죽인 군경 인술자였던 서복사투리 사내를 찾아내 살해한 후에 입산을 단행한다. 그는 그로부터 36년 동안이나 은신처를 옮겨다니면서 질긴 목숨을 이어가는 기구한 처지가 되었다.

「고여 있는 불」은 서울 사는 소설가(전직 잡지사 기자)인 ‘나’(김)가

13) 김석범, 『까마귀의 죽음』, 김석희 역, 소나무, 1988; 김석범, 『화산도』1~5, 이호철·김석희 공역, 실천문화사, 1988.

14) 김석희는 1990년대 이후 번역가로서 명성을 날렸다. 그는 번역 작업에 매달리느라 20년 가까이 소설을 발표하지 못했다.

고향 제주도의 너븐드르 마을에서 열리는 비룡못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4·3으로 황폐화된 공동체를 인식하게 되는 작품이다. 천년의 꿈인 승천이 무산된 커다란 뱀(‘지키미’)이 통한을 안고 바닥에 산다는 것이 비룡못이다. 비룡은 하늘을 나는 용[飛龍]이 아니라 비통한 용[悲龍]인 셈이다. 해마다 그 승천할 뻔했던 날에 마을공동체가 지내오던 제의가 비룡못제였는데, 그것이 20년 전 마을 처녀가 비룡에 물려 죽으면서 중단되었다가 올해에 재개된다는 것이다. 취재 결과 비룡못제의 중단은 4·3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비룡못 한복판에 시신으로 떠올랐던 처녀는 4·3의 와중에 태어났다. 처녀의 아버지는 무장대 지역책으로 활동하던 중 행방불명되었고, 지아비를 여윈 어머니는 눈 덮인 들녘에서 스스로 땃줄을 끊고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가 스물을 넘어서면서 사라지자 그 어머니가 딸을 찾아다니다가 돌아와서는 팽나무에 목매는 일이 발생했고, 그 6개월 후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진 딸은 열흘 만에 비룡못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신의 곳곳에는 예리한 이빨자국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미한테 물어뜯긴 자국으로 믿었다.

그런데 그 직후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마을에서 벌어졌다. 지난겨울부터 시작된 가뭄이 이어지더니 기어코 비룡못이 말라버렸는데, 그때 드러난 바닥의 모습이 주민들을 경악케 했다.

마침내 흉한 모습으로 밀창까지 거의 다 드러난 비룡못 바닥, 그 시커먼 개펄 속에는 빼만 앙상하게 남은 시체들이 무더기로 나뒹굴며 처박혀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20년 전 주민들이 마을에서 쫓겨가던 날 마을에 붙잡혀 남았던 사람들이 학살당한 뒤 수장된 시체들이었다. (...) 아버지의 시체, 아들의 시체, 형이나 아우의 시체, 남편의 시체, 아낙의 시체, 또는 온 가족의 시체…… 그러므로 너븐드르 사람들은 그 시체들이 썩어 녹아든 비룡못물을 마시며 살아온 셈이었다.〔고여 있는 불〕, 258-259쪽)

못 바닥에 가라앉았던 통한의 아픔이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4·3은 그렇게 주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때부터 비룡못제는 중단되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처녀가 비룡(지키미)에게 물려 죽었

다는 이유 즉 “너븐드르 사람이 비룡못에 빠져 지키미한테 물려 죽는 일이 생기면 못제는 당장에 중단하도록 되어 있었”(248쪽)던 불문을 때문이지만, 작가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4·3의 비극에 연결시켜 놓고 있다. 집단학살의 참혹한 실상이 20년 만에 드러나게 되었지만, 오히려 비룡못제는 지낼 수 없게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말았다. 4·3이 오랫동안 금기시되고 있던 정치적·사회적 현실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말을 나누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느닷없이 달라붙어 목을 조이는 그 기억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단 말ियो. 40년이 지났으니 그때 당한 사람들도 얼마 없으면 다 죽을 것이다? 그러면 다 잊게 될 것이다? 웃기는 소리요, 그건. 그럼 우리 세덴? 40년 전의 일은 어려서 기억에 없다 할지라도 20년 전에 그 참혹한 꼴을 두 눈으로 목격한 우린 어쩍니까? 우리도 얼마 없으면 다 죽을 게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이집 저집에서 한낱한시에 올리는 제사가 무엇을 뜻하는지, 그 아이들이라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라고 모를 것 같소?(『고여 있는 불』, 261-262쪽)

처녀의 죽음과 재생의 당사자인 김동석의 발언이다. 처녀의 죽음 이후 20년 만에 귀향한 그는 마을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죽은 처녀가 당시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는 소문을 퍼뜨린다. “그 못제가 다시 열리게 되려면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날 때”(248쪽)라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273쪽) 마을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비룡못제를 다시 올린다. 그것의 중단 과정에도 저변에 4·3이 관련되었듯이, 제의의 부활 역시 4·3에 연결된다. 이 제의는 곧 4·3위령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4·3이 더 이상 금기로 남아선 안 됨을 작가가 역설하고 있음이다.

이처럼 김석희는 무엇보다도 4·3의 진상을 규명하는 일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진실의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체로 제주도 출신의 기자와 전직 기자인 인물을 등장시켰다. 나아가 그는 아직도 그것에 대한 금기의 벽이 너무나 높다는 점을 강력한 메시지로 내세운다. 4·3공산폭동론만이 공식역사였던 당시로서는 4·3에 대한 금기 깨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메도루마 슌은 부모로부터 전쟁 체험을 들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전후 세대라고 스스로를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사명감을 갖고 오키나와전쟁과 관련된 소설들을 창작했다.

부모님과 조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전쟁체험은 나의 육친의 역사이자 더없이 소중한 증언들이다. 그들이 기억을 되새길 때 짓는 표정이나 목소리는 앞으로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만의 것이 아닌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생생한 현장으로 되살리는 것이 나의 의무이기도 했다. 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오키나와 전투를 소설로 쓰는 것이었다.¹⁵⁾

메도루마 슌은 “특공기가 미군함으로 돌격하는 모습과 해안가로 떠밀려온 비행병의 유해 이야기를 조부모님에게 들¹⁶⁾어서 「바람소리」를 썼다. 작가는 이 작품에서 풍장(風葬) 터에서 불가사의한 소리를 내는 두개골을 등장시킴으로써 특공대원의 죽음을 미화하는 행태에 일침을 가하면서 전쟁의 의미를 되새긴다. 여기에는 미군 상륙 이후 오키나와인들의 수난상이 그려진다.

미군이 상륙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식량은 거의 바닥이 났다. 마을 사람들은 낮의 함포 사격이 그치면 동굴에서 나와 얼마 안 되는 고구마나 사탕수수를 날라다 허기를 달랬다. 밤의 어둠을 뚫고 해안 근처에 있는 쿿구멍만한 밭에서 엄지손가락 크기밖에 안 되는 고구마를 허겁지겁 캐낸 요시아키와 세이키치는 돌아가는 길을 서둘렀다. 날이 밝기 전까지 산속 동굴에서 기다리는 어머니와 동생들 곁으로 갈 수 있을지 불안했다.(「바람소리」, 72쪽)

주민들이 굶주림 속에서 동굴(가마) 생활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혼들어넣기」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온다. 미군의 함포사격에서 벗어나는 일, 목숨을 부지할 식량을 구하는 일 모두 힘겨운 일이었다.

미군 공습으로 마을이 거지반 불에 타 버린 지 한 달이 지났다. 근처에 해군

15) 메도루마 슌, 『오키나와의 눈물』, 안행순 역, 논형, 2013, 57쪽.

16) 위의 책, 65쪽.

특수 공격정 기지가 있어서 우타네 마을은 피해가 유독 컸던 것이다. 다른 마을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갔다가 식량과 생필품 같은 걸 가지러 타다 남은 집으로 내려올 여유도 있었으나, 우타네 마을은 첫 번째 폭격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옷만 입은 채 산으로 피신한 우타네 마을 사람들은 함포 사격에서 벗어나는 일도 중요했지만, 첫날부터 식량을 구하러 나서야 했다.〔*흔 붙어넣기*, 39쪽〕

「물방울」에서도 미군의 포격으로 인한 참사가 그려진다. 집을 잃고 숨어 다니며 굶주리는 상황을 넘어서서 본격적으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기 시작했음이 나타난다. 끔찍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발생한다.

저녁 무렵 물을 길으러 나간 도쿠쇼 일행은 근처에 정박한 군함에서 쏜 포탄을 맞았다. 함께 있던 여학생 셋은 즉사했다. 이시미네도 파편으로 배가 찢겨 그나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도쿠쇼뿐이었다. 배를 누르며 신음하는 이시미네의 손바닥 밖으로 돼지나 염소의 배를 갈랐을 때 본 것과 같은 것이 비어져 나와 있었다.〔*물방울*, 36쪽〕

하지만 오키나와는 미군의 공격에만 희생된 것이 아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에게는 일본군도 미군과 다를 바 없는 존재였다.

스파이 혐의로 옆 마을의 경방단(警防團) 단장과 초등학교 교장이 일본군에게 쫓겨 죽었다는 소문은 동굴에도 전해졌다. 바닷가 이웃 마을의 가네히사라는 남자가 자기 집에 들렀다가, 연안에 있는 미군 함정에 신호를 보내려 했다는 혐의로 일본군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순진하게 아군이니가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 믿지 못하게 되었다.〔*흔 붙어넣기*, 40쪽〕

병사들이 주민의 식량을 징발하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서 애원하는 소리가 높아진다. 칼을 빼든 이시노가 닥쳐 하고 일갈하자 마을사람들은 바로 고개를 숙인다. (...) 참호 안쪽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나자 적에게 들키고 말거야 조용히 못 시켜 하는 소리가 난다. (...) 지금까지 세 명의 오키나와인이 스파이 용의로 우군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봤다. 청얼거리는 갓난아기를 필사적으로 달래고 있는 아이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둘러 이곳을 떠나고 싶었다.〔*나비 떼 나무*, 406쪽〕

오키나와인이 일본군에게 끌려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 오키나와인이

스파이 혐의로 일본군에게 살해당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 메도루마 순의 인식이다. 일본군에게 집단자결을 강요당한 오키나와 공동체의 입장에서는 일본도 미국과 다를 바 없는 외세라는 것이다.

메도루마 순이 소설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전쟁 파노라마나 전투 그 자체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 오키나와 민중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어갔는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 저편에 담아둔 채 전후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¹⁷⁾이었다. 따라서 그는 전쟁이 남긴 상흔의 양상에 많은 관심을 드러내었다.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는 영혼과 만나고 영혼의 상처를 듣는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나’는 1955년생 여성이다. 네 살 때부터 할머니 슬하에서 살다가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게 된다. 할아버지는 오키나와전쟁 때 희생되었다. 할머니는 ‘나’를 잘 보살피 줬으나 전쟁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는다. 할머니가 전쟁 상황을 전언하지 않는 까닭은 그 아픔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우리 할아버지도 전쟁 때 죽었는데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른다나 봐. 일본군에게 끌려가서 그길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할머니는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골치가 아파 일을 못 하게 된다며 거기까지밖에 들려주지 않았어. 나도 할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자세한 묻지 않았지.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 170쪽)

그런데 ‘나’에게 열다섯 무렵부터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개중에는 아마미오 섬 출신으로 일본군 장교들의 위안부였던 여인의 영혼도 있었다. 여인은 “지금 농협 건물을 짓고 있는 데는 전쟁으로 불타 없어지기 전까지 이층짜리 여관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했다”면서 “몹시 괴롭고 슬픈 일”(177쪽)을 겪었음을 말한다. 결국 ‘나’는 사무친 영혼에 의해 전쟁의 아픔을 알게 된 셈이다.

위안부 문제는 「나비떼 나무」에서도 다뤄진다. 여기서는 ‘고제이’로 대표되는 우치난추(오키나와 사람을 뜻하는 오키나와방언) 위안부만이 아니라 조선인 위안부도 등장한다. “위안소에서 끌려온 조선인 여자는

17) 위의 책, 69쪽.

처음에는 네 명이었는데 한 명은 도중에 어디론가 사라지고, 둘은 함포 사격 파편에 내장과 목이 찢어져서 죽었”(404쪽)기에 한 명만 살아남았으나, 미군 상륙 이후 도피 생활 속에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 처지다.

「브라질 할아버지의 술」에는 20대에 브라질로 건너가 30년 동안 남미에서 살다가 1950년경에 돌아온 노인이 등장한다. 귀국한 그는 부모 형제와 가까운 피붙이가 오키나와전쟁에서 모두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고향도 갈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다. 상전벽해가 되어버린 오키나와의 실상이 그의 눈에 비춰진다.

고향 마을에 도착하여 비로소 할아버지는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미군 기지의 철조망 건너편 세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진초록 등으로 위장한 군용 차량들이 늘어진 콘크리트 바닥의 어느 지점에 기억 속의 숲과 논밭과 집들을 갖다 놔야 할지 몰랐다.(「브라질 할아버지의 술」, 96쪽)

30년 전 그의 아버지가 아와모리 단지를 간직해 놓은 동굴도 미군 기지에 포함되었다. 몰래 들어간 그 동굴에는 “수습하지 않은 유골이나 유품”(97쪽)들이 남아 있을 뿐 단지에는 술이 들어있지 않았다. “여기는 이제 고향이라고 부를 수 없는 장소가 되었음”(97-98쪽)을 그는 깨달았다. 물론 메도루마 슌에게 이는 일본이 오키나와를 군사기지화하여 미국과 전쟁을 시작한 결과로 인식된다.

이렇게 볼 때 메도루마 슌은 오키나와전쟁과 관련하여 겉으로 드러나는 참상을 드러내기도 하였거니와 그 상흔의 양상과 현실적 의미를 추구하는 데 더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오키나와가 기지의 섬으로서 ‘전후 제로 년’¹⁸⁾의 상황으로 인식되는 절박한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18) 메도루마 슌은 오키나와의 현실에서 전쟁이 끝난 후라는 ‘전후(戰後)’ 시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면 ‘전후 제로 년’이라는 표현을 썼다. 국내에 번역된 『오키나와의 눈물』의 원제는 『沖繩‘戰後’ゼロ年(오키나와 전후 제로 년)』이다.

Ⅲ. 공동체 복원 추구의 방식

김석희의 작품이 4·3소설에서 유다른 점은 “4·3의 비극을, 우리의 분단모순이라는 커다란 논리의 틀에 기계적으로 편입시키기를 거부한다”¹⁹⁾는 데 있다. 20여 년 전의 작품들이지만 그만큼 도전적인 관점으로 4·3을 다룬 경우도 드물다. 그것은 바로 제주공동체의 독립에 대한 메시지 때문이다. 이는 메도루마 순의 작품 세계와 상당히 유사한 면모다.

특히 김석희의 「땅울림」은 탐라공화국으로의 독립을 직접 내세운 소설이다. 이 작품의 현용직은 해방 직후에 서울 활동을 접고 귀향하면서 “제주도를 한반도에 예속된 땅이 아닌, 일본에 점령당했다가 해방된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의 독립단위로” 여긴다. 따라서 그는 “한반도와 제주도는 똑같은 입장에서 자신의 해방을 맞이해야 한다”(45쪽)는 신념을 가졌던 것이다.²⁰⁾ 그것은 탐라공화국 건설의 꿈으로 이어진다.

탐라공화국. 제주인의 자치에 의한 독립정부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이는 본토에 대한 역사적 배타심의 발로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섬과 아무 관련도 없는 외지인들의 횡포로부터 제주도를 구해내자는, 일종의 생존적 자구책이었다.(「땅울림」, 48쪽)

1000년 가까운 오랜 세월 동안 “지하수로 흐르다가 마침내 표면으로 솟구쳐올라와, 강한 결속감으로 끈질긴 저항을 가능케 했던, 그 잠재적 조직력의 실체”(56-57쪽)가 바로 탐라국 재건의 꿈이었다는 것이다. 현용직을 중심으로 한 탐라공화국 건설의 꿈은 4·3 봉기 세력과 연결된다. ‘중립국 독립’이라는 방식으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 중엔, (...),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제주도를 독립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네. (...) 좌우가 맞붙어 싸우다 보면, 언젠가는 가령 스페인 내전처럼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켜, 결국은 현지 주민들의

19) 전형준, 「촌놈의 자존심」, 김석희, 『이상의 날개』, 앞의 책, 291쪽.

20) 1945년 8·15 이후 미군은 서울에 주둔한 일본군과는 별도로 제주 주둔 일본군에게 항복을 받았다. 그들은 일본과 오키나와처럼 한국과 제주도를 분리해 인식했다고 할 수 있다.

요구나 입장을 고려해서 이를테면 중립국으로 독립을 보장받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말일세.(『땅울림』, 52-53쪽)

현용직은 서북사투리 사내를 표적 살해한 것을 계기로 탐라국 재건의 불을 지핀다. 그는 시체 옆에 “탐라인의 이름으로 처단한다”(76쪽)는 쪽지를 남긴다. 제주인도 아닌 ‘탐라인’의 이름을 내세운 그의 테러는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 더구나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탐라왕국을 이끈 핵심 세력의 근거지인 삼성혈 부근이었다.

탐라인의 이름을 내세운 활동에 기대를 거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가슴이 쿵쿵 설레는 사람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섬 안 곳곳에서 이번 사건을 모방하여 ‘탐라인’을 내세운 테러가 잇따르기도 했”(76쪽)다.

물론 탐라공화국 건설의 꿈은 실현되지 못했고, 36년이나 입산생활을 했던 현용직은 속절없이 생을 마감한다. 그는 임종 전에 그동안 숨어지내던 산중의 동굴도 찾아가기도 하고 온종일 한라산을 향해 앉아 있기도 하고 산에서 걸쳤던 옷자락을 손에 들고 있기도 했다. 밤에는 땀 흘리며 무언가를 열심히 썼다가 날 밝으면 모두 불살라 버리는 일을 반복하곤 했다. 아마도 무언가 열심히 썼던 그것은 제주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4·3의 진실이요 나아가 그가 꿈꾸었던 ‘탐라공화국’의 참모습이었을 것이다. 현용직을 취재했던 김종민 기자는 물론이요, 둘의 생애와 죽음을 접한 ‘나’도 그런 인식에 도달한다. 내가 들은 “발아래 어디선가 쿵, 쿵, 쿵, 땅 울리는 소리”(84쪽)란 태초부터 면면(綿綿)하게 이어져온 자주적 실체로서의 제주사람들의 족적일 터이다.²¹⁾

「고여 있는 불」에서도, 김석희가 생각하는 제주공동체의 독자성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 「땅울림」처럼 전면적인 양상은 아니지만, 독립과 관련된 언급이 나온다.

가령 그들은 육지사람을 말할 때면 아직도 ‘육지것’이라는 언사를 거침없이

21) 이 글에서 김석희의 「땅울림」에 대한 분석은 주로 다음 논문을 참조한 것임.

김동윤, 「김석희 소설 「땅울림」에 나타난 독립적 자치주의」, 『영주어문』24, 2012, 65-89쪽.

사용했다. 또 그들 중에 어떤 이는 탐라왕국 시절의 제주를 입에 올리며(역사 속에만 전설처럼 남아 있는 그 왕국이 그에게는 현재진행형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다), 언젠가는 제주도가 독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여 있는 불', 279쪽)

너븐드르 마을의 비룡못제가 끝난 직후의 상황이다. 비록 특정인의 발언이지만, 탐라왕국을 거론하면서 제주도의 독립을 주장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서 말하는 '육지것'은 오키나와에서 본토인들을 일컫는 '야마토 짐승'²²⁾과 상통한다. 물론 이처럼 배타적이라고 지적될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수탈과 파괴에서 비롯된다.

'나'는 비룡못제를 올리는 너븐드르 사람들을 보면서 '시작도 끝도 알 수 없는 소리'를 접한다. 그 소리는 「땅울림」의 땅울림 소리와 동일한 것으로 읽힌다.

낮으면서도 힘차게 부풀어올랐다가 썰물처럼 순식간에 휩쓸려버리기도 하는 그 소리는, 사람들이 밟는 땅울림으로 들리기도 했고, 억새숲에 깃드는 바람결로 들리기도 했고, 수면을 타고 실려와 못가 둔덕에 부러지는 잔물결로 들리기도 했다.('고여 있는 불', 276쪽)

'나'는 취제가 끝나 너븐드르를 떠나지만 시나브로 그들과 혼연일체가 됨을 느낀다. “졸음에 겨운 의식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느낌 속에서, 나는 너븐드르를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으로 되돌아가고 있었다”(286쪽)는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 그것을 입증한다.

이처럼 김석희는 제주공동체의 독자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4.3소설에서 분명히 드러내었다. 내심 제주의 독립을 지향하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그다지 실감 있게 제시되지 않는다. 현실과의 거리가 꽤 많이 느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김석희의 4.3소설이 그다지 주목받지 못한 것은 4.3담론의 시대적 양상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 민중수난상의 부각을 통한 4.3 진상 규명 운동에 주력해야 했던 1980년대 후반의 상황으로서는

22) 야마시로 세이쥬, 「구넨보」, 앞의 책, 손지연 역, 426쪽.

‘탐라공화국 건설’의 문제가 돌출적인 메시지로 취급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것이다.²³⁾

그에 비해 메도루마 슌의 작품은 좀 더 행동적이고 구체적이다. 지역 공동체 독립의 문제가 가까운 현실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에서 ‘나’는 할머니가 세상 떠난 후부터 스넥 바에서 일하다가 야에야마 출신으로 본토의 대학을 중퇴한 청년과 만나 친하게 지낸다. 그 청년은 오키나와에서 개최되는 해양박람회에 참석한 황태자에 대한 습격을 시도한다.

헬멧을 쓴 남자가 화염병을 던지려고 하는 사진이라든가, 우아하게 차려입은 여자와 신사 복장의 남자들 앞에서 불이 타올라 모두들 낮이 나간 듯 바라보는 사진 같은 것을 보여 주면서, 이 사람들은 본토의 훌륭한 분들이다, 황태자 전하라고 하여 보통사람들은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귀하신 몸이란 말이다, 그런 분들에게 그놈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했다, 이 사건으로 오키나와 사람들은 어리석은 인간들이라고 본토 사람들에게 또다시 차별을 받게 되었다, 그놈들 탓에 오키나와 사람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게 되었는지 알기나 하냐고 호통을 치는 거야. (...) 그 사람 패거리가 박람회장으로 가는 황태자 전하의 차를 습격하려고 했다는 거야.(「이승의 상처를 이끌고」, 193-194쪽)

황태자 습격은 야마토에 대한 반대, 즉 오키나와의 독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끌려가 청년의 행방을 대라고 취조를 당하면서 ‘나’는 “오키나와 사람들이 차별을 받게 된다면 받으면 되잖아. 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고통을 겪어 왔고 차별을 받아왔는데, 뭐”(194쪽)라고 생각한다. 차별이 두려워서 독립 투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이다.

일본군이 들어옴으로써 전장이 되고, 전쟁으로 인해 할아버지와 많은 주민들이 죽고, 전쟁이 끝나도 여전히 차별 속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나’라는 여인이 기대던 청년은 황태자를 습격하는 거사를 도모했다.²⁴⁾

23) 김동윤, 앞의 논문, 66쪽 참조.

24) 메도루마 슌의 「오키나와 북 리뷰」에는 천황 문제가 반어적(反語的)으로 서술된다.

“황태자전하께 오키나와 신부들! 황태자전하를 오키나와의 사위로!” 만약 이 일이

이후 청년의 소식은 알 수 없었고, 혼자 지내던 ‘나’는 스물세 살의 어느 날 윤간당한 후 죽어 영혼이 된다. 비록 거사는 실패로 끝났지만 여인의 영혼은 여전히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는 곧 오키나와의 독립만이 이승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키나와전쟁 때 야마토 군인들의 행태로 인해 우치난추들은 더욱 처참해졌다. 그로 인해 생기는 우치난추들의 배신감은 엄청난 것이었다. 메도루마 순의 작품에서 그러한 양상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병사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전부 스파이였다. 일단 그렇게 단정해 버리면 그 후에는 어떻게 될까. 동틀 무렵 참호 근처를 걷고 있다는 것만으로 누인 두 명이 칼에 베어 죽는 것을 고제이는 목격했다. 손을 뒤로 묶인 노인들은 더듬거리는 표준어로 식량을 찾으러 마을로 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변명했다. 실제 가마니에 감자나 산양 고기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이 말하는 것 따위 우군은 처음부터 신용하지 않았다.〔나비떼 나무〕, 411쪽)

위의 인용에서 보면, 오키나와전쟁에서 일본군은 결국 아군(우군)이 아니었음이 드러난다. 아무리 야마톤추(일본 본토 사람)처럼 표준어로 얘기하려고 해도 그들은 일본군에게 타자일 뿐이었다. 그러기에 고제이는 수십년이 지나서도 “군대가 오고 있어. 모두 어서 도망쳐.(히-타이누-춘도-무루, 헤쿠아나 힌기리요-)”(384쪽)라거나 “어서 숨어(헤-가쿠리요). 야마토(大和) 군대가 널 찾으러 올 거야”(390쪽)라고 외친다. 우치난추들은 “씩어빠진 야마톤추(大和人), 때려죽여라-”(382쪽)라고 야유를 날리기도 한다.

우치난추들에게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같은 외세일 뿐이다. 그러기에 우치난추에게 1972년 일본에게 반환된 ‘오키나와 반환’은 진정한 반환이 아니었다. 다음은 「브라질 할아버지의 술」에서 ‘나’의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반환’되던 때의 상황이다. ‘나’는 그때부터 새로이 쓰게 된 일본 돈을 보면서 실망감을 표한다.

실현된다면 오키나와 주민의 열등감은 뿌리째 제거되어 야마토 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대동아 신질서의 재흥을 위해 목숨을 다해 분골쇄신 노력할 것입니다.”(134쪽)

(…) 천 엔짜리 지폐는 유치하고 천박해 보이기도 했거니와, 얼굴에 큰 점이 있고 간간해 보이는 노인네²⁵⁾에게도 호감이 가지 않았다. (…) 1엔짜리의 색도가벼움도 문양도 다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돈을 매일같이 써야 되나 하는 생각에,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브라질 할아버지의 술〕, 60-61쪽)

메도루마 슌은 평화로운 오키나와가 외부세력의 침탈로 인해 전쟁터가 되고 말았다고 확신한다. “군대가 있는 곳이야말로 공격을 받는 곳이며 막상 전쟁이 터지면 군대는 주민을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키나와 전투는 증명했다”²⁶⁾고 그는 말한다.

이런 인식은 「바람소리」에서 “뭐라꼬, 더는 듣고 싶지 않다. 여긴 느그들 본토인이 올 데가 아이다. 맞아 죽기 전에 어서 가라.”(84쪽)이라는 발언을 통해서도 그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그는 오키나와의 평화가 야마토를 포함한 외부 세력에 의해 철저히 훼손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외부 세력의 침탈 등으로 고향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은 오키나와가 스스로 서야 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메도루마 슌은 “오키나와의 운명은 오키나와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오키나와의 자기결정권”²⁷⁾을 강조한다. 실제로 그는 “자치가 아니라” “독립을 생각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학자들이 오키나와 독립학회를 만들었”²⁸⁾음도 강조한다. 그러기에 그는 전쟁 상황과 전후 현실을 그로테스크하게 그려놓는다. 그러서는 적당한 타협, 자동화된 기억, 규격화된 화해 따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50년을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살았는지 니가 아나?”

이시미네는 미소 지으며 도쿠쇼를 쳐다볼 뿐이었다. 일어나려고 몸부림치는 도쿠쇼에게 이시미네는 가볍게 고개를 까딱였다.

“고마워. 이제야 갈증이 해소됐어.”

이시미네는 완벽한 표준어로 그렇게 말하더니 미소를 거두고 거수경례를 한

25) 역자가 밝혔듯이, 이 ‘노인네’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가리킨다.

26) 메도루마 슌, 앞의 책, 안행순 역, 96쪽.

27) 김재용, 「대담: 메도루마 슌」, 『지구적 세계문학』, 2015년 봄호, 358쪽.

28) 위의 책, 359쪽.

다음 깊숙이 머리를 숙였다. 벽으로 사라질 때까지 두 번 다시 도쿠쇼를 돌아보지 않았다. 오래되어 더러워진 벽에 도마뱀 한 마리가 기어 나와 벌레를 잡아먹는다.

새벽을 맞이하는 마을에 도쿠쇼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다.〔물방울, 42쪽〕

“거짓말로 전쟁 때 눈물 나는 얘기 팔아서 돈 벌다가는 금방 벌 받는 데이.”(30쪽)라는 지적은 전쟁의 기억은 진정성을 갖고 전승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⁹⁾ 진정성 있는 기억투쟁이 독립 추구의 의지를 현실화할 수 있고, 나아가 그것이 평화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상에서 볼 때 김석희의 4·3소설과 메도루마 슌의 오키나와전쟁소설은 지역공동체를 매우 중시하면서 과거 독립왕국이었음에 비추어 독립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각각 탐라왕국과 류큐왕국의 역사에 대한 기억을 안고 있기에 파괴된 공동체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독립국 수립을 내세우며 독자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키나와전쟁소설과는 달리 4·3소설의 경우 이러한 독립 지향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4·3이 종료된 뒤에는 시도해 보기조차 어려운, 전설과 꿈으로만 여겨질 따름이다. 그래서 「땅울림」에서 탐라공화국 건설을 꿈꾸었던 현용직과 제주도적 순수성을 집요하게 추구했던 김종민은 끝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으며, 「고여 있는 불」에서 독립 문제가 화젯거리로만 떠오를 뿐이다.

이는 메도루마 슌이 초현실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접근하는 작품을

29) 여기서 우리는, 전쟁을 직접 다룬 작품은 아니지만, 메도루마 슌의 과감한 상상력이 발휘된 엽편소설 「희망」을 떠올리게 된다. 오키나와 사람인 ‘나’가 미군 자녀를 납치하여 살해한 뒤 “지금 오키나와에 필요한 것은 수천 명의 데모도 수만 명의 집회도 아니다. 한 명의 미국인 아이의 죽음이다”라는 범행성명서를 낸 뒤에 분신자살한다는 내용이다. ‘나’의 다음과 같은 독백은 간담을 서늘케 한다.

“놈들은 고분고분 열매진 오키나와인이 이런 짓을 하리라곤 꿈도 못 꿔던 게다. 전쟁에, 기지에 반대한다면서 기껏 집회나 열고 그럴까한 데모나 하며 대충 얼버무리는 암전한 민족. 좌익이니 과격파니 해봤자 실제론 아무 피해도 못 입히는 개릴라 짓이 고작. 요인(要人) 테러나 유괴를 할 리도 없고 총으로 무장할 리도 없다. 군용지(軍用地) 대금이니, 보조금이니, 기지가 배설하는 더러운 돈에 물려드는 구더기 같은 오키나와인. 평화를 사랑하는 치유의 섬이라고? 구역질이 난다.”(메도루마 슌, 「희망」, 서경석(임성모·이규수 역), 앞의 책, 66-67쪽에 전문이 번역되어 실림)

주로 쓰는 데 비해, 김석희의 경우 취재와 추리에 근거하는 리얼리즘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창작했음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다. 정치권력에 의해 오랫동안 금기의 역사였던 4·3 담론과 일본·미국 등의 탐바구니에서 인식의 확대를 지향해간 오키나와전쟁 담론 간에는 그 전개 방식에서 적잖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 문학적 형상화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IV. 문화적 정체성의 강조 양상

김석희와 메도루마 슌은 공히 문화적 정체성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낸다. 지역공동체의 성립이야말로 풍속이나 언어 같은 문화적 정체성에서 비롯됨을 인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전통적 제의(祭儀)를 요긴하게 활용하여 주제를 구현한다는 면에서 두 작가가 상당히 유사하다. 김석희의 「땅울림」과 「고여 있는 불」에서는 모두 마을제가 등장하며, 「고여 있는 불」의 경우에는 제주의 샤먼인 ‘심방’이 등장한다. 메도루마 슌의 작품에서도 「나비떼 나무」의 경우 마을의 풍년제가 펼쳐지고, 「혼 불어넣기」에는 ‘마부이구미’ 의식이 행해진다.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의 할머니와 「혼 불어넣기」의 우타는 오키나와의 샤먼인 ‘신녀(神女)’이다.

김석희의 「땅울림」에서는 가공(架空)의 전설을 제시하고 그것을 마을제로 연결시킨다. 작가는 탐라공화국 건설의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강조하기 위하여 탐라왕국과 관련된 마을제와 전설을 그럴듯하게 가공하여 제시한다. “공동체적 결속감을 역사와 결부시킴으로써 그들을 다독거리고 일깨워온 것 중의 하나가, 해마다 음력 5월 초사흘날에 열리는 광랑제(廣郎祭)”(55쪽)라는 것이다.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오랜 옛날 탐라왕국이 멸망한 뒤 광랑이라는 한 유신(遺臣)이 이곳으로 숨어들어와서 나라를 되찾으려고 준비하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는데, 그를 기리기 위해 시작한 제가 광랑제라는 것이다. 원래는 그의 뜻을 기려 다짐하는 행사였던 것이, 세월이 흐르면서 마을의 안녕

과 주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평범한 부락제로 변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광랑제가 올려지는 동안, 전설과 함께 내려오는 그 조상의 한을 되새기며, 탐라 왕국에 대한 향수와 꿈을 잠깐이나마 맛보곤 한다는 것이다.(『땅울림』, 55쪽)

「고여 있는 불」은 마을제인 비룡못제가 작품의 주요 모티프다. 그것이 중단되었다가 20년 만에 복원되는 계기는 4·3과 관련이 깊다. 비룡못제의 복원은 공동체의 복원을 지향하는 것이면서 4·3위령제의 봉행을 촉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4·3의 진상 규명과 지역공동체의 복원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함을 전통적 제의의 부활 양상을 통해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메도루마 순의 「나비떼 나무」에서 풍년제는 우치난추 공동체에게 요구되는 기억의 재생과 관련된다. ‘류큐 예능’들이 의미 있게 제시되기도 한다.

부락이 생겼을 무렵 태어나 백이십 살까지 살며 많은 자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노인이 우선 풍년제의 내력을 설명하고 오곡풍양(五穀豐穰)하라는 기원을 올린다. 그에 맞춰 객석의 나이든 여자들도 함께 손을 모으고 연달아 기원의 말을 중얼댄다. 옆에 있던 아이들도 손을 모아 흥내를 내는 것을 보고 젊은 부모들이 웃는 가운데 풍년제 무대가 시작된다. 노인과 노파의 모습을 한 남녀의 카제테 후라는 춤을 시작으로 이니시리 교겐이나 쇼치쿠바이 등 부락에 전해오는 예능이 차례차례 펼쳐져 간다. 평상시에는 류큐 예능을 볼 기회가 적었지만 결코 싫어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서른을 넘기도 나서는 태어나 자란 섬 음악이 자신의 핏줄 속에 흐르고 있음을 자각할 정도였다.(『나비떼 나무』, 380-381쪽)

카자이데후는 류큐 고전음악의 악곡이자 류큐 무용의 하나이고, 이니시리 교겐은 교겐(狂言)의 하나이고, 쇼치구바이는 경사나 길상의 상징인 송죽매(松竹梅)를 의미하며 축하연에서 노래로 불린다.³⁰⁾ 이후에 슈돈이라는 류큐 고전무용도 선보인다. 그런데 고제이가 슈돈 공연 와중에 갑자기 나타나서 “군대가 오고 있어. 모두 어서 도망쳐.(히-타이누춘도-무루, 헤쿠아나 힌기리요-)”(384쪽)라거나 “어서 숨어(헤-가쿠리요). 야파토(大和) 군대가 널 찾으러 올 거야”(390쪽)라고 외친다. 이는 작품에서

30) 광형덕의 역주 참조.

오키나와전쟁의 상처를 다시금 떠올리게 하면서 올바른 기억의 전승 방향을 깨우쳐주는 기능을 한다.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에서 할머니는 ‘니가미’라고 해서 마을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신녀였다. ‘나’도 신녀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열여덟 때 할머니가 세상 떠난 후 신녀가 되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정령이 깃든 나무라는 거주마루에서 영혼을 만난다. ‘나’가 오키나와전쟁 당시의 위안부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청년도 영혼이 어느 정도 보이는 남자였다. 영혼을 볼 줄 아는 존재임은 오키나와의 진실을 제대로 읽어낼 줄 아는 것으로 풀이된다.

「혼 불어넣기」의 경우 전통적인 의식과 관련하여 짚어볼 부분이 있다. ‘魂込め’라는 작품(집) 제목은 일본 본토어가 아니라 ‘마부이구미’라는 오키나와 말이다.³¹⁾ 여기서 우리는 메도루마 슌이 오키나와어를 제목으로 삼아 그러한 의례를 오키나와의 아픔과 현실에 연결시켰음을 주목해야 한다. ‘마부이구미’는 제주의 ‘넛들임(넛들임³²⁾)’과 유사하다. 제주에서는 육체에서 이탈한 영혼을 불러 육체 속에 복귀시키는 의식을 ‘넛들임’이라 하며, 이 의례는 경미한 경우 어머니가 하곤 하지만 심하다고 생각되면 ‘심방’에게 의뢰한다. 민속학자 현용준은 “넛은 그 아이가 일상 입던 옷에 붙어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넛이 떨어져 나간 곳에 간단한 제사를 차리고, 심방은 넛을 불러들이는 의식(儀式)”을 한다면서, 한반도에는 ‘넛들임’의 의례방식이 없으나 “우리 주변민족의 ‘넛들임’은 오키나와의 ‘마부이구미’라는 의식이 ‘유타’라는 오키나와의 무당에 의해 많이 행해지고 있”³³⁾다고 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메도루마 슌의 작품 제목은 ‘혼 불어넣기’가 아니라 ‘넛들임’으로 옮겨야 마땅하다.

번역자인 유은경은 역주(譯註)를 통해 “원문을 직역하면 ‘혼 불어넣기

31) 김응교, 「폭력의 기억, 오키나와 문학: 오에 겐자부로, 하이타니 켄지로, 메도루마 슌의 경우」, 『외국문학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66쪽.

32)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넛들임’을 표제어로 올리고 “제주도 곳에서, 넛이 몸에서 나가 생긴 병을 고치려고 하는 곳”으로 풀이하고 있다.

33)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258-260쪽.

의식'이 된다. 몸과 유리된 혼을 불러들이는 의식으로, 우리나라 민간에 전해지는 초혼 의식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으로 인해 나간 혼이 다시 돌아와 몸과 합쳐져 살아나기를 기원하는 행위, 즉 죽은 자에 대한 의식이지만 이 소설에서는 초혼 의식이 산 자에게 행해진 다”(21쪽)고 언급하였으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제주의 ‘넛들임’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오해라고 하겠다. 이처럼 제주에서 행해지는 민속으로 ‘넛들임’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번역에서 무시된 것은 주변부 혹은 마이너리티의 말(의례)이라서 무시된 것으로도 풀이할 수 있다.

방언의 활용은 지역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두 작가의 경우 각각 ‘제주어(제주도방언)’와 ‘우치나구치(오키나와방언)’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김석희보다는 메도루마 순이 더 적극적으로 방언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메도루마 순은, 「나비떼 나무」에서 고제이가 우치나구치로 야마토 군대를 피하라는 등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고 있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방언을 유용성 있게 적극 활용하는 편이다. 유은경이 번역한 작품들에서 경상도방언으로 나오는 부분은 모두 우치나구치가 구사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방언이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물론 메도루마 순도 “오키나와 젊은이들이 이미 오키나와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식하여 “한정적”³⁴⁾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하지만, 작품에서 중요한 장치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김석희의 경우 「땅울림」에서는 제주어를 전혀 구사하지 않는다. 화자가 “대화를 표준어법으로 고친 것은 제주도인이 아닌 독자들을 염두에 둔 불가피한 수고였다”(32쪽)고 말하는 데서 보듯이, 제주어가 외지인들과는 소통이 어려운 방언임을 의식한 조치였다. 그러면서도 토벌군인의 서복사투리는 거침없이 구사되고 있다. 다만 「고여 있는 불」에서는 너븐드르 사람들의 대화체에 한해서 제주어가 활용된다. 어미(語尾)를 제주어로 구사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지역민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두 작가 모두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34) 메도루마 순, 앞의 책, 안행순 역, 143쪽.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대체로 메도루마 순이 좀 더 적극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지역공동체의 독립 추구 양상이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라는 점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마무리

이 글은 4·3문학의 지평을 확대함과 아울러 양 지역의 문학적 연대를 목적으로 씌어졌다. 이를 위해 필자는 오키나와 작가 메도루마 순의 소설(「바람소리」·「물방울」·「혼 불어넣기」·「브라질 할아버지의 술」·「이승의 상처를 이끌고」·「나비떼 나무」)과 제주 작가 김석희의 소설(「땅울림」·「고여 있는 불」)을 대비적(對比的)으로 고찰하였다.

김석희의 4·3소설과 메도루마 순의 오키나와전쟁소설은 참혹한 사태의 양상에 주목하고 있는 점에서는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김석희는 금기 깨기를 통한 진상규명에 비중을 두는 데 비해, 메도루마 순의 경우 그 상흔의 양상과 현실적 의미에 더 주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는 4·3의 경우 공산폭동론이라는 강요된 공식기억에서 벗어나는 것이 1980년대에 직면한 과제였던 반면, 오키나와의 경우 기지의 섬이라는 절박한 현실 상황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 작가의 작품들은 지역공동체 독립을 지향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오키나와전쟁소설과는 달리 4·3소설의 경우 독립 지향성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거의 없는, 4·3 이후에는 시도조차 어려운, 전설과 꿈으로만 여겨질 따름이다. 그래서 「땅울림」의 현용직과 김종민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고여 있는 불」에서는 화젯거리로만 떠오를 뿐이다. 이는 메도루마 순이 초현실적으로 그로테스크하게 접근하는 작품을 주로 쓰는 데 비해, 김석희의 경우 취재와 추리에 근거한 리얼리즘 방식으로 창작했음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다. 정치권력에 의해 오랫동안 금기였던 4·3 담론과 일본·미국의 틈바구니에서 인식의 확대를 지향해 온 오키나와전쟁 담론 간에는 그 문학적 형상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지역공동체를 중시하는 두 작가는 문화적 정체성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낸다. 특히 지역의 전통적 제의(祭儀)와 샤먼 등을 요긴하게 활용하여 주제를 구현한다는 면에서는 두 작가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방언(‘제주어’와 ‘우치나구치’)의 활용에 있어서는 메도루마 순이 더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4·3소설의 입장에서 볼 때 오키나와전쟁소설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오키나와전쟁소설은 4·3을 4·3 자체만으로 애써 한정하려거나 지역적·국내적 범위에 묶어두려는 4·3소설의 일반적 경향에 대해 경종을 울려 준다. 창작방식에서도, 메도루마 순의 작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통적이고 독자적인 양식과 제의 그리고 언어에 기대면서 변형된 리얼리즘 방식을 4·3소설이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김동윤, 「김석희 소설 「땅울림」에 나타난 독립적 자치주의」, 『영주어문』24, 영주어문학회, 2012.
- 김석범, 『까마귀의 죽음』, 김석희 역, 소나무, 1988.
- 김석범, 『화산도』, 이호철·김석희 공역, 1~5, 실천문학사, 1988.
- 김석희, 『이상의 날개』, 실천문학사, 1989.
- 김응교, 「폭력의 기억, 오키나와 문학: 오에 겐자부로, 하이타니 켄지로, 메도루마 순의 경우」, 『외국문학연구』 3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08.
- 김재용, 「대담: 메도루마 순」, 『지구적 세계문학』, 제5호(글누림, 2015 봄).
- 마타요시 에이키, 『긴네무 집』, 광형덕 역, 글누림, 2014.
- 메도루마 순, 「나비떼 나무」, 『지구적 세계문학』 제5호, 광형덕 역, 글누림, 2015 봄.
- 메도루마 순, 『혼 불어넣기』, 유은경 역, 아시아, 2008.
- 메도루마 순, 『물방울』, 유은경 역, 문학동네, 2012.
- 메도루마 순, 『오키나와의 눈물』, 안행순 역, 논형, 2013.
- 서경식, 『난민과 국민 사이』, 임성모·이규수 역, 돌베개, 2006.
- 야마시로 세이쥬, 「구넨모」, 『지구적 세계문학』 제5호, 손지연 역, 글누림, 2015 봄.
- 이명원, 「오키나와 전후문학과 제주 4·3문학의 연대: 마타요시 에이키의 「긴네무 집」과 현기영의 「순이삼촌」의 세계성」, 『재일제주인과 마이너리티』, 제주대학교 재일제주인센터, 2014.
- 이시우, 『제주 오키나와 평화기행: 동백꽃 눈물』, 말, 2014.
- 현용준, 『제주도 사람들의 삶』, 민속원, 2009.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April 3rd Fiction and
Okinawa Battle Fiction:
with focus on cases of Kim Suk-hee and
Medoruma Shun

Kim, Dong-Yun*

The constant interest in April 3rd Uprising makes us aware that it is still going on in a variety of forms and that it is not a mere Jeju's problem, which brings us closer to Okinawa. Okinawa is said to be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Jeju. Therefore, in order to expand the horizon of April 3rd literature and establish literary solidarity, a comparative study was conducted on Okinawan writer Medoruma Shun (1960-) and Jeju's writer Kim Suk-hee (1952-). The former writer's works include "The Crying Wind," "Droplets," "Spirit Stuffing," "Old Man Brazil," "The Suffering of this Life," and "Tree of Butterflies," and the latter writer's works are "Earth Tremor," and "Stagnant Fire."

Kim Suk-hee's April 3rd fiction and Medoruma Shun's Okinawa battle fiction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both orient toward the independence of local communities in relation to dire situations. Unlike Okinawa battle fiction, in the case of April 3rd fiction, orientation toward independence is considered a dream impossible to come true i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National University.

reality. Therefore, in “Earth Tremor,” Hyun Yong-jik and Kim Jong-min are destined for death, and only talked about in “Stagnant Fire.” This difference stems from the fact that while Medoruma Shun writes his works in a surrealistic and grotesque way, Kim Suk-hee takes realistic approaches based on coverage and reasoning. These different approaches to the literary embodiment are naturally taken because discourse on April 3rd Uprising has long been tabooed while discourse on the battle of Okinawa has found its way to expand awareness, jammed betwee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Both writers who consider local communities important show keen interest in cultural stagnation.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both writers in that they make a good use of ritual ceremonies to embody the motif. However, the difference lies in the use of dialects (the Jeju’s language and *Uchinaaguchi*). Medoruma Shun uses *Uchinaaguchi* more aggressively.

Seen from the part of April 3rd fiction, Okinawa battle fiction speaks volumes. It sounds an alarm bell over the general tendency of April 3rd fiction that confines April 3rd Uprising to itself or only to local and domestic ranges.

key words : Kim Suk-hee, Medoruma Shun, April 3rd fiction, Okinawa battle fiction, local community, independence, identity

교신 : 김동윤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E-mail : kdongyun@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5. 05. 11.

심사완료일 2015. 06. 03.

게재확정일 2015. 06. 10.